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 보성군, 벌교 천상갯벌서 뽕배대회 개최

### 내달 12일 '제4회 전남도지사배 레저 뽕배대회' 개최

### 국가중요어업유산 뽕배 이용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보성군은 오는 8월 12일 벌교읍 장암리 뽕배체험관리센터에서 '제4회 전남도지사배 레저 뽕배대회'를 개최한다.

'레저 뽕배대회'는 보성군이 주최하고 전남도가 후원하며 보성의 대표적 특산물인 벌교 꼬막을 캐기 위한 아동 수단이었던 뽕배를 지난 2010년 레포츠 장비로 개발하여 청정갯벌에서 뽕배 레이싱을 즐기는 행사이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벌교 천상갯벌'을 주제로 공식행사, 뽕배레저 스포츠 경기 등 4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레저 뽕배 경기에 이어 행사에 참여한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중·고, 대학·일반부 등으로 구분하여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여촌계 간의 단체 씨

름, 갯벌 속 보물찾기, 아빠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데야타기, 레저뽕배 무료 체험, 뽕배 제작과정 시연과 전시행사로 갯벌 사진, 전통 뽕배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로 화려하게

열릴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보성군 홈페이지나 해양수산과(850-5432)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여름 가고싶은 섬 33선에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도 인근 갯벌에서 국가 중요어업유산인 뽕배를 이용하여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시원한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뽕배 대회에 즐거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에 앞서 오는 8월 11일 벌교읍사무소에서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뽕배' 어업의 계승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전남대학교 황두진 교수 주재로 개최해 어업유산으로써의 가치와 역사적 고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 고흥군, 청소년 금연 캠프 호평 속 운영

### 중·고생 80여 명 대상 '나를 찾아 떠나는 건강한 여행'

고흥군은 관내 중·고등학교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건강한 여행'이라는 청소년 금연캠프를 운영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녹동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8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 캠프를 진행한다. 청소년 금연 캠프는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금연특강과 그룹별 집단상담, 게임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잘못된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학생들의 금연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페실리테이션'(합의에 의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통한 금연방법 찾기와 흡연예방 UCC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교육을 마친 후 학생들은 금연 성공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며 금연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그 동안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캠프를 계기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확실히 알게 돼 금연을 결심하게 됐다"며, "금연캠프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금연캠프를 통해 참여 학생의 60%가 금연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흡연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활기찬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초·중·고 42개교 3,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신안 대리당숲 국가

### 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안군은 신안 대리당숲이 산림청으로부터 대리당 당재문화 및 인근 도서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소사나무 군락으로 독특한 섬지역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국가 산림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안 대리당숲은 신안군 하의면 대리리에 위치 해 있다. 대리마을은 남양계갈매기 모여사는 집성촌으로 대리당은 하의도 본당의 위상을 가지며, 당숲은 인근도서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낙엽활엽수림대에 주로 서식하는 소사나무 군락으로 구성된 독특한 마을숲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당재는 마을에서 춘분과 추분을 기준으로 5일후에 춘재와 추재를 지냈으며 마을에서는 대리당은 영험이 있어 가뭄이 없이 농사가 잘 되고 병해충이 없을 것이라 믿어왔다. 당신은 7신으로 荷衣(德壽山后土神(하의덕봉산후토신), 后穰神(후직신), 周鼎藥神(주조기신), 句龍神(구룡신), 風伯神(풍백신), 雨神(우신), 雲神(운신)이다.

군은 천혜자원 및 섬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정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이번 대리당숲이 국가 산림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되면서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신안=박응식 기자

## 영광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캠프 실시

### 근대 역사 현장 군산 탐사

영광군은 지난 8일 전북 군산 일대에서 관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근대 역사 문화 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에서 주관한 이번 역사 문화캠프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 시설을 돌아보면서 역사해설사의

설명을 곁들여 개최된 근대시설물이 들어오는 과정과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근대역사박물관과 동화사, 일본식기숙 등 군산의 근대 역사문화 현장을 방문하여 근대역사에 대한 이해와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영광중학교 학생은 "일본의 자본에 의해 추진되어 우리 민족 수탈기관의 역할을 했던 근대 시설을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생 각해보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역사캠프가 참가 학생들의 역사를 보는 시야를 넓혀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장성군, '실버복지 도시'로 우뚝 서다

### 전국 최초 현대식 공공실버주택 내년 문 열어



장성군이 '실버복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필두로 사랑의집과 치매거점센터가 잇따라 장성에 건립된 데 이어 최근 전국 최초로 기공식을 마친 현대식 공공실버주택이 내년에 문을 연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주거여

서 치료 및 요양 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노인복지 시설이 집적돼 있는 도시로 우뚝 선다.

장성군은 지난 3일 장성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와 복지, 건강 경제활동 관련 시설을 한 데 모은 현대식 복합 노인 주거시설로, 초고령자의 주거, 복지, 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최첨단 주택이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를 벌여 지난해 1월 9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했으며, 광주·전남에선 장성군이 유일하게

사업지로 뽑혔다. 장성군은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 총 164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지상 10층(연면적 8,677㎡) 규모로 지어지는 공공실버주택에는 25㎡ 주택 90가구, 35㎡ 주택 60가구가 들어선다.

건물 1층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실, 다목적 강당, 간호사실, 취미실, 필집방, 부업실, 자원봉사실, 식당 매점, 게스트 하우스, 경로당을 짓는다. 준공 예정일은 2018년 9월.

장성군은 공공실버주택을 준공하면 고령자들의 주거, 치료, 요양,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버복지 클러스터'를 구축해 노인복지 증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 함평군,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선정

### 이달부터 2달간 지역아동센터서 한의약 성장교실 운영

함평군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2017 취약아동대상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2달간 총 8회에 걸쳐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함께 건강더하기 한의약 성장교실'을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 교사,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터 중심의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어린이 성장체조, 건강지압법, 건강교육과 상담 등 아이들 스스로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습관화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성희 보건소장은 "표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합건강증진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보건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 대상 초경맞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함평=김광훈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곁엔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